



특집 _ “코로나19 극복과 통일에 재외동포 힘 모을 것” 한인회장 새해 희망 메시지, 재외선거 참여 호소
 기획 _ 조선족 · 고려인 언론인, “모국연수로 실력배양, 뿌리 의식 커져”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민 방문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세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루는 결실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계는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전 세계가 협력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국 대한민국은 지난해 코로나 속에서도 착실하게 발전하여 유엔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면서, 세계 속에 더 높은 위상을 구축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역시 세계 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주요 행사들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면서, 동포사회와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 건립 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내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연대감을 유지하며, 나아가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포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차세대 동포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동포들의 모국방문을 더욱 늘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한글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한인회장대회,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 20주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동포'와 해외입양동포, 다문화 동포 등의 문제도 인권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외 동포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류의 정신 즉 K-spirit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는 평화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모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도 거주국의 국민들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들은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아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06



08



22



- 02 신년사 세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김성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 04 특집 “코로나19 극복과 통일에 재외동포 힘 모을 것”
한인회장 새해 희망 메시지, 재외선거 참여 호소
- 06 기획 조선족 · 고려인 언론인, “모국연수로 실력배양, 뿌리 의식 커져”
- 08 화제 1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민 방문
- 09 화제 2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 10 글로벌 코리안 美한인 이민사 다룬 다큐 ‘무지개 나라의 유산’ 이진영 감독
美 연방고법 판사된 한국계 루시 고
고석화 월드옥타 명예회장, 17년째 비영리단체에 기부
- 12 한민족 공감 쿠바 이민 1세기, ‘쿠바인이자 한국인’으로 사는 1천여 명 후손
- 14 유공 동포 독일 심장외과학 발전 견인, 인술 펼친 백승은 박사 별세
- 15 주목! 차세대 나눔 위한 장학사업 집중, 이주한 YBLN 회장
- 16 동포소식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한국의 멋’ 담은 전통 벽화로 단장 외
- 18 문화 호랑이, 용맹의 상징, 해학의 주제, 한국을 상징
- 19 동포 캘린더 말레이시아한인회, ‘메타버스’ 활용해 ‘한국의 날’ 행사 개최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K팝 아카데미 동문회, 영국 한류 ‘짚팬’ 600명 배출
- 21 지구촌 통신원 2 인도네시아 롬복섬 한국형 휴양림 인기
- 22 OKF 뉴스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 코리아페스티벌 인천서 개최 외
- 24 유관단체 소식 한국국제협력단, 코로나 중단 해외봉사단 재파견 외
- 25 기고문 1902년 인천에서 시작된 이민의 역사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 26 재단공지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할 대학생 봉사단(OKFriends) 모집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 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통일에 재외동포 힘 모을 것” 한인회장 새해 희망 메시지, 재외선거 참여 호소

“재외동포 권익 옹호 최선 다할 것”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코로나로 어려웠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를 보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외동포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져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남은 기간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예년과 다른 재외동포의 단합된 힘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전 세계 500여 한인회들의 대표단체로 출범한 세한총연은 새해에는 명실공히 750만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한총연이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약 200여개 한인회장님들이 입회를 하셨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회장님들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시어 세한총연에 힘도 실어 주시고, 향후 회원으로써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 삶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우리네 삶의 여러 기본적 영역에 침범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2년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거의 동일한 공공 보건 차원의 제한 조치 속에서 이 사태를 견뎌내고 있는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 나아가 동포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이 험히 그려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와는 다른 기대를 가져봅니다. 최악의 질병이었던 페스트와 3천5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년 전 스페인 독감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2년 넘게 제약받는 상황에서 이를 견뎌내는 것이 어렵고 답답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올해는 진정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사태를 극복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 준 셈입니다. 또한 인류 공존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 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팬데믹 사태를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간다면 올해는 분명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그간의 힘들었던 액운을 밟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50만 재외동포 앞장서 통일 물꼬를”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우리는 인류역사상 초유의 초음속 시대, 1년이 100년처럼 빠

르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국경과 문화, 인종을 초월해 숨 가쁘게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 구태(舊態)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인 단체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과 파도를, 열린 자세와 소통, 화해와 포용, 그리고 배려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해, 포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통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의 결집된 역량으로 물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회사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이 시대에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민족, 국가를 열어갈 역량이 충분합니다. 동서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은 서독 정부의 포용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들의 결집된 자신감이 밖에서 안으로 물결쳐 분단과 배척의 독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대한의 광복을 앞당기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팬데믹 이기고 흑호처럼 비상하길”

구철 재일본한국인연합회중앙회 회장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민족은 세계적 위기가 경제와 사회와 삶을 위협하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서 흑호(黑虎, black tiger)와 같이 강하고 힘차게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려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역시 그런 힘이면 곧 극복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2022년 임인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가족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게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재외국민의 결집된 힘 투표로 보여야”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인사말이 요즘처럼 진심으로 와 닿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우리는 팬데믹의 혼돈을 헤쳐 나가며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임인년 흑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사 낙천적이며 독립심이 강하여 한번 마음먹게 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투지가 넘쳐흐릅니다. 흑호랑이처럼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말고 새해 새로운 희망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우리 200만 재외국민들의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022년은 재외국민 투표 50만명 달성으로 재외동포의 열망과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인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이겨내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길”

유영준 중남미한인총연합회 회장

동포 여러분! 그 동안 코로나19로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지 벌써 두 해가 되어 갑니다. 지독해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반드시 꺾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 내시고 견디셨듯이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한다면 꼭 새해 새로운 희망을 마주하실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흑호랑이 해입니다. 흑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또한 매사 낙천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길 바라며, 또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길 기원 드립니다. 멕시코 동포 여러분 2022년 파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선족 · 고려인 언론인, “모국연수로 실력배양, 뿌리 의식 커져”

재외동포재단, 중 · 러 · CIS 동포언론인 초청해 미디어 교육 · 문화체험

“**첫** 단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최신 취재 노하우를 배우며 정체성도 키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2021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에 참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CIS) 동포언론인 10명은 지난 12월 10일 출국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배움도 뜻깊었지만,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는 2015년부터 재중 동포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 2019년에는 러시아 · CIS지역 동포 언론인들까지 참가 대상이 확대됐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 되지 못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연수에는 해란강닷컴 · 길림신문사(중국), 고려신문 · 새고려신문(러시아), 고려사람(우즈베키스탄), SARAM · MAGUUM · ISKER MEDIA(카자흐스탄) 소속의 대표 · 편집인 ·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뉴미디어, 기사 작성법, 소셜미디어(SNS) 활용법 등 취재 관련 교육을 받았다. 국내외 경제, 사회, 외교, 대북정책 등 관련 전문가 강의로도 들었다.

서울, 제주 등에서 역사문화 체험을 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동포재단’ 온라인 간담회도 참석했다.

“뿌리의식 커지고 네트워크 생겨 큰 수확”

참가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국내 최대 고려인 집거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



마을’을 견학하고 ‘김치 담그기’ 봉사를 펼친 것을 꼽았다.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기자 출신의 ‘MAGUM’ 편집장 코르차기나 발레리야 씨는 “선주민들과 상생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고려인 마을’의 모습에서 모국의 따뜻한 배려를 느꼈고, 역사문화관을 지어 자녀에게 고려인의 정체성을 전하는 모습에서 울컥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 지의 최 예카테리나 기사는 “고려인이라는 뿌리 의식이 커지고 동포 언론인 네트워크가 생긴 게 가장 큰 수확”이라며 기뻐했다.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으로 ‘고려사람’ 발행인인 채 예브게니야 씨는 “모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고려인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채한 고려인은 과거와 달리 모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나 방문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2

시선이 있어서 안타깝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새고려신문’을 발행하는 배순신 대표는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양한 정보를 듣고 고민한 시간이었다”며 “동포사회 소통의 중심적 역할과 더불어 모국에 주요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SARAM’ 채널의 채예진 PD는 “증조할아버지가 생전에 늘 당부한 것이 ‘평양 채 씨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였다”며 “이것이 모국과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이번 연수로 한민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생겼고 제대로 뿌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수 기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재외동포 분야 기사 교류를 모색하는 간담회도 참석했다.

중국 ‘해랑강닷컴’의 주성화 대표는 “재외동포를 취재하는 모국 언론사를 방문해 교류·협력을 모색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하는 데에 동포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느낀 연수”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고려신문의 이철수 편집장은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의 많은 동포언론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모국의 관심과 배려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연수를 연계해 차세대 동포 언론인을 더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우리의 말과 얼을 지켜온 재외동포 언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흥익인간 정신으로 거주국의 풍습,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길 바라고, 각자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전 인류와 하나 되기 운동을 위한 캠페인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동포재단’으로 25개 언론사와 소통

재외동포재단은 연수기간인 지난 12월 2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재외 동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화상간담회 ‘찾아가는 동포재단’도 실시했다.

간담회는 지역별 동포사회 및 언론환경 현황을 청취하고, 재외동포 언론



3



4

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과 러시아·CIS 지역 동포 언론인을 포함해 25개 언론사에서 2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간담회는 강형원 전 LA타임즈 기자의 특별 강연에 이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재단 주요 사업 소개와 참석자별 자유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주로 방송과 신문 매체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언론은 전 세계에 한류를 전하는 신경망과 같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얼을 지켜나가고 한국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재외동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참]**

1. 동포언론인들은 지난 12월 3일 광주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2. 재외동포재단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언론인 10명에 대한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3. 재단은 연수에 참여한 언론인을 포함해 재외동포 언론인과 화상간담회인 ‘찾아가는 동포재단’을 실시했다.
4.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의 ‘월곡 고려인 문화관’을 방문한 동포언론인들.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민 방문

K-9 자주포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민 방문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민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며, 특히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3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핵심 품목 공급선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기차, 2차전지 등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하고자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호주는 한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위해 10년간 5천만 호주달러(약 421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모리슨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2월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주 방문의 큰 성과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공급된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사업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12월 14일에는 호주 총리와 만찬, 호주 노동당 대표 접견, 호주 경제인과 간담회 등 뻘뻘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 6위의 자원 부국인 호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고, 2차 전지·전기차 반도체 경쟁력을 토대로 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온 호주 경제인들을 향해 “광물산업은 호주와 한국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분야”라며 “한국은 호주의 세 번째로 큰 광물 수출 시장이고,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의 절반을 수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드니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아시아 최초로 주최... 60여 개국 기여 공약 발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 의지를 모으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 안보 분야 최대 회의 중 하나로, 아시아 국가가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상으로 4개 세션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총 75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대표가 발언자로 참여했고, 60여 개국이 PKO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전략자산 지원, 병력 파견, 훈련과정 제공 등의 기여 공약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유엔 현지 임무단을 미래형 ‘스마트 캠프’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프리카 지역 임무에 필요한 헬기 16대를 긴급 공여한다는 등의 공약을 밝혔다. 정부는 케냐 등 병력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엔 헬기부대 창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미국은 재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네 번째 세션 기조발제에서 “유엔 평화유지에 공군 부대를 공여할 관심이 있는 여러 다른 병력공여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한국과 케냐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헬리콥터 부대 구축을 위한 공동 공약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국들은 수송기·무인항공기 등 항공 자산 기여, 급조폭발물 대응(counter-IED)을 위한 훈련 제공, 병력 및 경찰 인력 기여, 코로나19 백신 제공 및 의료 역량 강화, 여성 참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또 대부분의 참여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월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 기여국 간 파트너십 ▲임무단 의무지원 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분야 기술 확대 등 9개 항목을 회원국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한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연설자로 참여했다. 반 전 총장은 “오늘날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이 잘 준비되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시절이던 2014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함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고, 이듬해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평화유지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는 오늘날의 평화유지 장관회의로 이어졌으며 영국, 캐나다, 뉴욕 유엔본부에 이어 서울이 네 번째 개최지가 되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한때 유엔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국가의 외교장관으로서 평화유지를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는 이번 장관회의 개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숭고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듯이, 한반도에서도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고 세계 각지의 분쟁 극복과 평화 유지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



美한인 이민사 다룬 다큐 ‘무지개 나라의 유산’ 이진영 감독 “영화 찍으며 118년전 하와이 사는 착각에 빠졌다”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 (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 을 만드는 동안, 118년 전인 1903년의 하와이에 사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미주 한인 이민사는 그 자체로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이진영 감독은 첫 연출작 ‘무지개...’으로 지난 11월 ‘중국 국제 뉴미디어 단편영화제’ 결선에 진출했고, 자유와 인권을 화두로 삼은 국내 ‘리버티 국제 영화제’에 초청돼 신인 감독상을 받았다.

영화 제목의 ‘무지개 나라’는 하와이를 의미한다. 하와이는 인종이 다양하며 이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섬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다. 지난 연말 영화 본편 마지막 회 촬영차 방한한 이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조들의 당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최근 한국 내 다문화 사회가 오버랩됐다”며 “과연 당시 하와이 사회가 우리 선조에게 베풀었던 관용과 포용을 지금, 우리는 베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프롤로그(20분)와 5편의 본편(각 20분)으로 구성됐다. 프롤로그에서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땅을 처음 밟은 한국인 102명은 왜, 무엇을 위해 고국을 등지고 먼 이국땅으로 떠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편은 1903년부터 1920년까지 한국에서 하와이로 건너간 한인 이민 1세 직계자손 5명과의 인터뷰로 만들어졌다.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한인 3세 작가 게리 박 씨, 미국 내 첫 한국계 시장인 해리 김 하와이 카운티 시장, 한국인 첫 미국 주 대법원장인 문대양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약하는 마이클 임 씨, 양성철 전 주미대사의 아내인 이정진(미국명 데이지 양) 교수다.

이 감독은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한 뒤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 영화의 후속편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와이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다른 국가 한인 이민사를 그 후손을 통해 짚어볼 생각이다.

美 연방고법 판사된 한국계 루시 고 상원서 찬성 5표 앞서면 인준... “아메리칸드림 이뤄”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12월 13일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5로 통과시켰다.

2010년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른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고법 판사 지명을 받았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6년 초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민자의 딸이라는 고 판사의 배경은 ‘아메리칸드림’의 고무적 증거”라고 평가했고, 앨릭스 파달라 상원의원도 “아메리칸드림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고 판사도 지난 10월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 내 다양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의 재확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허·영업비밀·상법 전문가인 고 판사는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고, 지난해에는 인구조사를 조기에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전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고석화 월드옥타 명예회장, 17년째 비영리단체에 기부 500만달러 사재출연 ‘고선재단’ 설립해 매년 재정지원

고석화 미국 밴쿠버호프 명예회장이 시더스 사이나이 암 연구센터 등 비영리 봉사단체 16곳에 총 10만 달러(약 1억1천800만원)를 기부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명예회장인 고 회장은 2004년 사재 500만 달러를 출연해 ‘고선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비영리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2021년에도 각 단체에 1천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에 이르는 ‘고선자선기금’을 전달했다.

지난해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다인종 커뮤니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암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더스 사이나이 암 연구센터를 비롯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살롬 장애인 선교회,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아동병원연구소, LA 다운타운 노숙자 쉼터, 비전시각장애인센터 등이 기금을 받았다. 2020년에는 미주 지역 한인단체 및 봉사단체 17곳에 총 10만2천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고석화 명예회장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봉사자들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낀다”며 “올해 17번째 고선자선기금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와 도움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한 고 회장은 퍼시픽 스틸 코퍼레이션과 코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활동하다 1980년 미주 한인사회 첫 은행인 ‘월셔은행’을 설립했다.

2014년 자산 2억 달러의 ‘뱅크아시아나’와 6억 달러의 ‘새한은행’을 인수·합병했고, 2016년 한국계 은행 중 자산 규모 1위인 BBCN(76억 달러)과 ‘동등 합병’ 방식으로 통합해 덩치를 키웠다. 이듬해 은행 이름을 ‘뱅크오브호프’로 바꿨다.

고석화 명예회장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2007년과 2010년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폐장을 알리는 종을 올렸다. **창**



쿠바 이민 1세기, '쿠바인이자 한국인' 으로 사는 1천여 명 후손

한인 5~6세, 한국 방문 등 계기로 한국인 정체성 재확인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 중 하나인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1세기 전에 한인들이 처음 발을 디뎠고, 뿌리를 내렸다. 1905년 멕시코 에네켄(용설란의 일종) 농장에 노동 이민을 떠난 한인 1천여 명 중 300여 명이 1921년 또 한 번 배를 타고 쿠바로 재이주했다. 1세대 한인들은 지역별로 대한인국민회를 만들고 한글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고, 1천여 명의 후손들도 한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다.

안토니오 김 함(79) 쿠바 한인후손회장은 지난 연말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리셉션 자리에서 집에서 가져온 커다란 유리병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병 안엔 조부모 때부터 전해온 방식으로 만든 양배추 김치가 들어있었다. 쿠바에서 나고 자란 김 회장은 김치 외에 고추장, 간장까지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다고 했다. 김 회장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쿠바 전역엔 그와 같은 한인 후손들이 모두 1천88명 거주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김세원의 손자인 김 회장은 할머니와 어머니도 모두 한인 후손이어서 한국인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처럼 아직 쿠바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후손들은 모두 40명이다. 현재 한국에서 나고 자란 1세대는 한 명도 없지만 후손들 상당수는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

여기엔 독립운동가 임천택(1903~1985) 선생과 자녀들의 역할이 컸다. 두 살 때인 1905년 어머니와 함께 멕시코로, 1921년 다시 쿠바로 이주한 임천택 선생은 마탄사스 민성학교, 카르데나스 진성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하며 한인들이 조국의 언어를 잊지 않도록 힘썼다. 1954년엔 '큐바이민사'를 편찬해 1세대 쿠바 한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기도 했다. 광복 이후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사회의 결속이 다소 느슨해지고



쿠바 카르데나스와 마탄사스에 사는 한인 후손들.

1959년 쿠바 혁명과 곧 이은 미·쿠바 단교로 한국과 쿠바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쿠바 한인들의 정체성도 얼어졌다.

점점 멀어질 것 같았던 쿠바 한인과 조국의 거리가 다시 좁혀지는 데엔 임천택의 장남 임은조(헤로니모 임·1926~2006)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쿠바 혁명에도 참여하고 차관급 고위직에까지 오르며 쿠바 주류 사회에 안착했던 임은조는 1995년 쿠바 한인 중 처음으로 한민족축전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조국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됐다. 그는 한인회를 재건하기 위해 쿠바 곳곳을 돌며 한인 후손들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발품을 팔아 작성한 명부를 토대로 한인회의 정부 인가도 추진했지만, 수교국 북한을 고려한 쿠바 당국의 거부로 비공식 단체 한인후손회로 남게 됐다.

오빠와 함께 한인회 설립을 위해 힘썼던 마르타 임 김(임은희·84) 전 마탄사스 종합대 교수는 작고한 역사학자 남편 라울 루이스와 함께 '쿠바의 한국인들'을 써서 부친에 이어 이민사 기록자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 현재 많은 한인 후



왼쪽부터 아버나의 한인후손문화원에 걸린 한인 이민사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안토니오 김 함 쿠바 한인후손회장. 쿠바 독립운동가 임천택 선생의 딸 마르타 임 김. 한인 5세 라우라 박.

손들이 쿠바인이자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직으로 현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도 많다.

임천택 선생의 손녀이자 아버나 최고 권위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노라 임 알론소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도 뿌리에 자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여기까지 오면서) 차별이나 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오히려 어디서든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더 주목받고 배려 받았다”고 말했다.

한인 3세 화가인 알리시아 데라캄파 박(56)은 “쿠바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나 예술 창작의 방식 등 내 삶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2009년 전시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한 달간의 방문을 통해 내 선조의 문화와 강한 영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쿠바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함께 모여 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한인후손회 카르데나스 지부 회장인 아델라이다 김(73)은 “300여 명의 카르데나스 한인 후손들이 1년에 네번이라도 계속 모여 음식을 함께 먹으며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카르데나스 한인회관과도 같은 그의 집엔 태극기와 부채, 김치 사진 등 한국의 소품들이 잔뜩 진열돼 있다.

안토니오 김 함 회장도 전국에 흩어진 쿠바의 한인 1천88명이 한자리에 모일 날을 꿈꾸고 있다. 회장직을 젊은 세대에게 곧 넘겨주려 한다는 김 회장은 “올해 이민 100주년에 모두 모이고 싶었는데 코로나19와 경제적 이유로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나라서 찾은 내 뿌리... “자식에게도 한국 가르칠 것”

아버나에 사는 한인 5세 정보공학자 라우라 소톨롱고 박(32)은 대학 졸업 직후인 2013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른 쿠바 한인 후손 9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 경주, 비무장지대 등을 찾아 한국의 어제와 오늘,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라우라는 “한국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 할아버지 덕분에 내 뿌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며 자랐다”며 “한국에 다녀온 후 내 뿌리가 더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랑’을 비롯해 한국어서 보고 배운 것을 모두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겠다”며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누엘 무니스 박(27)은 몇 년 전 한국에 초청을 받아 한식요리 수업을 받았다. 현재 아버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마누엘은 “한국에 다녀온 뒤 더 한국인처럼 느껴졌다”며 지금은 쿠바 요리를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 한국에서나 쿠바에서나 한식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인 후손들은 지역별 한국 문화 동호회에서도 활동한다. ‘쿠바의 한국인들’ 저자인 마르타 임 김은 “한인 1, 2세 이후로 열 어지던 쿠바 한인 후손들의 한국인 정체성이 1995년 (오빠)헤로니모의 첫 한국 방문 이후 다시 짙어졌다”며 “한국 방문 기회가 늘어나면서 후손들이 점점 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쿠바엔 한국어를 가르쳐줄 ‘원어민’ 교사 조차 없다. 안토니오 김 함 쿠바 한인후손회장은 “젊은 후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역할”이라면서 더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아울러 후손들이 모국을 방문할 기회도 많이 생기길 희망했다. **장**

독일 심장외과학 발전 견인, 인술 펼친 백승은 박사 별세

30년간 선천성 심장 결함 · 대동맥 협착 치료에 큰 족적

재 동포로 독일 심장외과학에 큰 족적을 남긴 백승은 의학박사가 지난 11월 1일 8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서울 출생인 고인은 경기고를 졸업 후 1955년 연세대 의대에 진학했다. 재학 중 뛰어난 성적으로 해외 유학 장학생에 선발돼 독일 마인츠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에 1958년 입학했다.

그는 동 대학에서 1966년 의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했고 1968년에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후 1970년 독일에서

심장외과로 가장 유명한 뮌헨 클리닉에서 전공 수련의를 거쳤다.

이 병원 책임자인 루돌프 젠커 박사는 독일 최초로 심폐 기계에 의한 심장 수술에 성공한 권위자였고 독일 남부 최초로 자체 수술실과 집중 치료실을 갖춘 심장 특수부서가 있었다. 당시 정규 근무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백 박사는 헌신적으로 병원 생활을 이어갔다.

바이에른 주가 독일 최초의 '심장 전문병원'을 뮌헨에 설립할 때 백 박사는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1974년에 개원한 이 병원은 이후 최고의 심장병 수술 클리닉으로 성장했다.

현재 일반화된 스텐트 치료 기법이 도입된 것은 10년도 더 지나서였다. 그전까지 심장 판막 결함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 심장마비 등 수 많은 응급환자가 이곳을 거쳐 갔다.

백 박사는 특유의 섬세한 손기술을 앞세워 아동의 선천성 심장 결함, 선천성 대동맥 협착증 치료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중증 질환을 지닌 미숙아의 치료를 위해 환자를 18도로 냉각해 치료하는 심부체온요법을 처음 선보였고, 1981년 5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독일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에도 성공한다.

당시 동료였던 마이스너 박사는 그를 “뛰어난 전문 지식과 고



하늘 독일 하이델베르크 심장병원 원장, 세베닝 뮌헨 심장 전문병원 원장 교수와 함께 함부르크 흉부외과 회의에 참석한 백승은 박사(좌). 독일 뮌헨 심장 전문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백승은 박사.



도의 집중력, 초인적 체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며 인간적인 공감을 할 줄 아는 의사였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독일에서도 심장 수술 분야가 성인과 소인으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그가 은퇴한 이후로는 두 영역을 모두 마스터한 의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는 30년간 독일 심장외과의 역사와 함께한 산 증인이고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한 선구자였다. 그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대에 혈혈단신 독일로 건너와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고장 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다. 그를 잘 아는 김영환 한양대 법대 교수는 “한국 문화가 몸에 밴 백 박사는 현역 시절 겸손한 태도와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며 “병원 구성원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어 1970~1980년대 ‘뮌헨 심장 전문병원’이 심장외과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일구는 밑거름이 된 인물이다”고 평가했다.

백 박사는 병원을 떠난 후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는 등 나서지 않고 청렴하게 생활했다. 그래서 동포사회나 모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별세 소식을 들은 마인츠 한인회 등이 조용히 추모행사를 열었다. **[장]**

나눔 위한 장학사업 집중 이주한 YBLN 회장

인도네시아 로얄수마트라 그룹 대표이기도 한 2세 경영인

차세대 한인 경제인 모임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의 이주한(46) 회장은 현지 사업을 발판으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며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2세 경영인이다. 이 회장은 “차세대 동포 기업인들은 모국과 거주국 어느 한쪽에 완전히 몰입될 수 없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살기에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과 정을 나누는 게 큰 기쁨”이라며 “회원들은 연간 스케줄 중에 세계한상대회 기간 열리는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행사 참가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2002년부터 세계한상대회에서 열린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에 참가한 한인 차세대들이 유기적인 교류를 위해 2008년 결성한 것이 영비즈니스 리더네트워크(YBLN)이다. 30여 개국에서 무역, 제조, 유통,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운영하는 2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YBLN은 한상대회뿐만 아니라 매년 회원 거주 도시에서 여는 ‘시티포럼’과 아세안 지역의 ‘아세안포럼’ 그리고 대륙별 포럼 등 비즈니스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킹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며 “더불어 내외 동포 대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1억 원 규모의 장학사업도 펼친다”고 소개했다.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장학생의 적성과 장래 꿈을 고려해 회원과 1대1 매칭 멘토링도 펼친다.

이 회장은 “이전에는 동유럽·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구성 국가 공동체) 지역 고려인 학교나 한인 학교를 후원하는 ‘한상 꿈꾸는 교실’ 사업을 해왔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열린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교류 행사.

젊은 한상들의 리더 이주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주류사회를 파고들어 성공한 경험을 전달해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멘토링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전했다.

부친이 창업한 기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인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개발, 의류기기·방산물품 제조, 철판 가공업 등으로 연간 5천만 달러(약 588억원) 매출을 올리는 로얄수마트라 그룹의 대표이다. 골프장·국제학교·빌라 등을 연계한 레저단지를 건설 중인 그는 “인도네시아는 사업 관련 각종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지만, 정이 많아서 신뢰를 쌓으면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YBLN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차세대 기업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나눔에 앞장서고 차세대 육성에 헌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로얄수마트라 그룹도 현지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타운 '한국의 멋' 담은 전통 벽화로 단장

건물 외벽에 1년간 작품 전시, 한국 문화 알리는 랜드마크 기대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의 한인타운에 대형 한국 전통 벽화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브라질 한국 문화원은 한인타운의 주요 건물 외벽에 대형 한국 전통 벽화를 전시해 '한국의 멋'을 알리는 행사를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다. 양국 문화 교류·협력 확대와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 행사는 최소한 1년간 계속될 예정이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색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동화 속의 캐릭터에 한복을 입혀 한국적인 느낌을 소화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우나영 작가의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화관무' '라퐁젤' '견우와 직녀' '대왕 연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의 한인타운 건물 외벽에 그려진 한국 전통 벽화.

꽃 전설'과 브라질 한인동포 전옥희 작가의 작품 '우리 모두 하나' 등이 전시됐다.

우 작가는 미국 디즈니와도 협업한 경력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전 작가는 브라질 농촌의 여인과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화폭에 담은 작품으로 국내에도 알려져 있다.

황인상 총영사는 "한국 벽화 전시를 통해 봉헤치루 지역이 중남미 최고의 한류 중심지이자 명품 한인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통 벽화 행사와 함께 한국 전통무용과 K-팝 공연이 이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한인타운 거리에서 화려한 한복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호주 라이드시, 한인 환경운동단체 공로 인정 기념비 설치

市 명의 기념비, 호주 한인단체로는 처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라이드시(시장 제롬 락살)가 한인 환경운동 봉사단체의 활동을 인정해 시드니 인근 키싱포인트 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한호일보에 따르면 라이드시는 18년간 매월 '클린업 더 월드' 행사를 열어 시와 시드니 일대 공원,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활동을 펼친 '진우회'(Fraternity in Truth Association·코디네이터 박현호)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귀감이 된다며 기념비를 세웠다. 호주에서 한인 단체의 공덕에 대해 시 명의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에는 "락살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과 조지 데데스 제너럴 매니저가 '클린업 더 월드' 운동에서 중추 역할을 한 회장 격인 김석환 코디네이터와 진우회 회원들이 오랫동안 라이드



호주 라이드시가 한인 환경운동 단체의 공로를 인정해 시드니 인근 키싱포인트 공원에 설치한 기념비.

시의 환경 정화 활동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03년 설립된 진우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일대, 팜비치, 워이워이비치, 레인코브 국립공원 등지에서 청소 활동을 해 왔다. 이 단체는 유엔 산하 유엔환경경프로그램이 추진하는 '클린업 더 월드' 프로젝트에도 가입했다. 진우회는 이스트 우드 상공인연합회, 시드니 한인상우회, 시드니 웨스트라이언스클럽, 이스트 우드로터리클럽, 이스

트 우드 중국노인회, 라이드 일본인 커뮤니티, 이슬람 커뮤니티 청년 그룹, 호주한인복지회 등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청소를 통해 다민족의 화합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 열린 기념비 제막식에는 제롬 락살 시장과 로이 마지오와 페니 펜더슨 시의원, 강흥원 시드니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한인단체,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본격 추진

버림받은 한인 입양인 1만 5천 명... '인권 문제'

미국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가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1월 11~13일 워싱턴DC에서 연례 KAGC 전국 콘퍼런스를 2년 만에 열어 입양인 법안 문제를 논의한다. 김동석 대표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중 3분의 2인 최소 1만5천 명이 한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면서 연방의회에 한인들의 지지 의사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KAGC에 따르면 지난 3월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에는 이날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8명이 지지 서명했다. 로이 블러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원 법안에도 11



미국 최대의 한인 유권자 시민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소아시민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실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소아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AGC는 입양인권리캠페인, 홀트인터내셔널과 함께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AE)라는 연합을 출범시켜 20여 개 단체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열려... 각국서 100여 명 참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최 국제심포지엄, 임시총회 등 열려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지난 12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가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개국 30여 개 도시에서 100여 명의 재외동포 언론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회식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상기 아시아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 방콕에서 접속한 전용창 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회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축하 공연, 주식농부 박영옥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참가자 기념 촬영. 이번 대회는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포사회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다뤘다.

씨의 '주주민주주의 확립과 정부·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함께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재외동포 언론 진흥 방향', '재외동포 정책 제안 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여익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한인 언론인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언론진흥원'(가칭)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고, 시사

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가상공간에 '월드 코리아 메타 시티'(World Korean Meta-city·재외국민 특별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 최영호 전 재외한인회장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하루빨리 건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협회 임시 총회와 대정부 결의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호랑이

용맹의 상징, 해학의 주제, 한국을 상징

힘과 용맹을 겸비한 호랑이.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민속화인 호작도(우).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였기에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도 한다. 10개의 천간 중 검정에 해당하는 ‘임’(壬)과 12개의 지지 중 호랑이를 뜻하는 ‘인’(寅)이 만나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예부터 힘과 용맹을 겸비한 영험한 동물로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이다. 달로는 음력 1월, 오행으로는 ‘목’을 상징하고,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5시, 방위로는 동북동에 해당한다. 순우리말은 ‘범’이다.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부터 호랑이가 등장할 뿐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묘사돼 있다. 민간신앙에서는 산령(山靈)이니 산중왕(山中王) 등으로 불리며 잡귀와 액을 쫓아내는 동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의 설화 중에는 많은 동물이 등장하는데 그중 호랑이에 얽힌 설화가 단연 많다. 육당 최남선(1890~1957)은 “조선은 호담국(虎談國)”이라면서 “범 이야기로만 ‘천일야화’나 ‘데카메론’ 같은 책을 꾸밀 수 있다”고 말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국토의 생김새도 뒷다리와 꼬리로 몸을 지탱하고 대륙을 향해 앞발을 휘두르는 호랑이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우리 설화나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는 웃음과 교훈을 주는 동물로 묘사된다. 목에 걸린 가시를 빼준 인간의 은혜에 보답하고, 약자를 도와주거나 효자를 지켜주기도 한다.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옛날이야기에서 보듯이 무섭기보다는 친근하다. 용맹함만 자랑하다가 토끼나 여우 등에게 골탕먹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한다.

‘용호상박’(龍虎相搏)처럼 호랑이가 들어간 언어표현도 많지

만 예술이나 일상생활 등 우리의 문화 속에 폭넓게 녹아 있다. 소나무와 까치를 배경으로 호랑이를 중심에 놓은 민화 ‘까치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는 동시에 새해를 맞는 즐거움과 기쁨을 담았고, 작가 미상의 ‘근역강산맹호기상도’는 우리나라 지도를 용맹스러운 호랑이로 표현했다.

조선 시대 무관 관복의 흉배에 수놓아진 호랑이는 부귀와 권세를 상징했고, 호랑이 꿈은 길몽 중의 길몽으로 여겼다. 호랑이는 명예와 권세,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태몽으로 꾸면 장차 그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것으로 믿었다.

지금은 한반도 전역에서 호랑이가 거의 사라졌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서울 인왕산은 호랑이 산으로 유명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해수구제(害獸驅除)사업’으로 멸종됐다. 일제는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없앤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선인의 기상을 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한국호랑이를 도살했다.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는 ‘백두산 호랑이’로 학계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나 ‘동북아시아 호랑이’로 불리며, 남한에서는 1921년 경북 경주 대덕산에서 수컷 호랑이가 사살된 것을 마지막으로 호랑이 포획이나 호랑이 발자국 흔적을 발견한 기록이 없다.

지금 호랑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지만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문화적 상징으로 스며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백호),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의 구호도 ‘범 내려온다’였다. 그리고 벽화마을의 골목과 담벼락에는 곰방대 물고 있는 호랑이가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에도 들어가있다. [▶](#)



말레이시아한인회, '메타버스' 활용해 '한국의 날' 행사 개최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21 한국의 날' 을 한인 단체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 (확장 가상세계)를 이용해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 행사를 열지 못했고, 올해 가을에도 확진자 급증 사태가 이어지자 아예 가상공간에서 행사를 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메타버스 전문 업체 'V-STORY'가 말레이시아 한인회를 위한 가상 공간을 협찬했고, 한국 대사관과 관광공사, 한국 국제 학교가 콘텐츠를 지원했다. 가상 공간에서 코리아 랜선투어, 웹툰 체험, 유튜브 영상전, K-팝 댄스 영상, 태권도와 한글 캘리그라피 온라인 수업 등을 즐길 수 있었다.



美한인단체, 토네이도 피해 한인 돕기 모금운동 전개

미국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최병일)는 지난 연말 발생한 토네이도로 피해를 본 한인들을 돕기 위해 1월 8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캔터키·테네시 등 5개 주를 훑고 지나가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토네이도로 마틴 한인회관 건물 상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지상층도 지붕이 부서져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테네시주 위클리 카운티 드레스덴시에 위치한 한인회관은 매년 김치 축제와 설·추석 잔치를 열어 현지에 한국문화를 알리던 장소이자 한인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다. 모금 운동을 통해 모은 정성은 드레스덴시 재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한인회, 현지 빈민촌서 '한마음 사랑 나누기 행사' 개최

스리랑카한인회(회장 변성철)는 12월 17일 마딱콜리아 지역에 있는 '해피 칠드런스 센터'에서 '2021 한마음 사랑나누기' 행사를 열고, 5Kg짜리 쌀 128포와 신발 100켤레를 전달했다. 마딱콜리아 지역은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생활하는 빈민촌이며,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다. 2011년 이 지역에 개소한 '해피 칠드런스 센터'는 '교육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유치부·중고등부로 나눠 36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음악, 탁구 등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자원봉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인천 연수문화원, 고려인 이주사 담은 책자 발간

인천 연수문화원이 연수구에 사는 고려인(옛 소련권 거주 한인)들의 이주 이야기를 담은 '들꽃 같은 사람들'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18년 연수구에 정착한 조 빅토르(67)씨 등 고려인 5명의 이주 이야기와 삶의 궤적을 정리한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연수문화원은 이번 신간에서 1937년 스탈린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환해야 했던 고려인들의 상황과 필연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수문화원은 2017년 '먼우금 사람들'과 '어촌계 사람들'을 차례로 발간하며 지역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기록한 바 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한인회에 마스크 2만장·산소호흡기 4대 전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한국대사관(대사 박철주)은 12월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와 한글학교에 마스크 2만 장과 간이 산소호흡기 4대 등 긴급재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남아공 거주 우리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방역물품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파동의 진앙지로 꼽히는 수도권 하우텅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지급됐다. 한국대사관은 실시간 각오로 오미크론에 관련된 정보를 한인회에 전달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회사, 새 건물에 한인 이름 명명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폼팩터사는 지난 연말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에 8번째로 지은 자사 건물에 '태마 김' 전 기술 부사장의 이름을 딴 '태마 김 메뉴팩처링센터'(TM KIM Manufacturing Center)를 오픈했다. 새 건물은 8천350㎡ 규모로, 반도체 클린룸과 사무실, 창고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에 이름이 새겨진 태마 김 씨는 1995년 폼팩터사에 입사해 2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새 건물 입구 벽에 새겨졌고, 로비 정면에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그가 회사 발전에 공헌한 내용을 적은 표지판이 부착됐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K팝 아카데미 동문회, 영국 한류 '찐팬' 600명 배출

3대가 함께 수강... 졸업생들 한류문화 확산 주역

“2003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외로웠고 한국 콘텐츠를 접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난 연말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열린 K팝 아카데미 10주년 졸업생 재회의 날 행사에서 사회를 본 닐자 아니발씨는 잔뜩 들뜬 표정이었다.

아니발씨는 주영한국문화원이 2012년부터 운영해온 10주짜리 종합 문화교육 프로그램인 K팝 아카데미의 졸업생으로 회계회사에서 일하며 한류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K팝 아카데미는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교수, 셰프, K팝 안무가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전통 문화와 현대문화를 두루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영국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한국 문화 전반으로 그 열기를 퍼뜨리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봄, 가을에 30명씩 모집해 지금은 20기까지 졸업생이 모두 600명이 나왔다. 주영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인기가 많아서 수강생을 선발해서 받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학생들은 매주 숙제를 낼 정도로 열의가 뜨겁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한국 관련 공부를 하거나 아예 한국에서 일하기도 한다. 졸업생들이 만든 한류 동아리 '마이웨이브 컬렉티브'는 지난 2020년부터는 온라인 한류축제 '한류콘'을 자체 기획하여 운영한다. 특히 K팝 아카데미가



한국전 참전용사 패릿 준장의 강의 모습.



2012년부터 시작한 한국 문화 종합교육 프로그램 'K팝 아카데미' 10주년 졸업생 재회의 날 행사.

처음 생겼을 때 찾아온 1기 졸업생들은 한국 문화 '찐팬'이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을 100여 명으로 제한했는데 참석자 중 약 20%가 1기였다. 이날 행사에는 3대 7명이 총출동한 가족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21세 세이씨가 처음 인연을 맺었고 손녀를 보며 61세 할머니 메리씨도 수강을 했다. 엄마와 8세 아미레 등 동생들은 자원 봉사자로 나섰다.

2012년부터 주영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 종합 강좌인 K-팝 아카데미에서 한국 전쟁과 한국 근대사 강의를 해 온 한국전 참전용사 패릿 준장과 리버풀대 엄혜경 교수도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 2등급 훈장 모란장을 받은 패릿 준장은 “K-팝 아카데미 초기엔 문화원에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영국인이 먼저 너도나도 참가하고 싶다고 한다”며 한국을 바라보는 영국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기뻐했다.

이어 한류 확산에 기여한 졸업생 시상식에 이어 영국 왕립음악원 출신 현악 4중주단, 영국에서 활동하는 가야금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K팝을 듣고 부르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한국 음식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겼다. [장]

인도네시아 롬복섬 한국형 휴양림 인기

산림청이 지원한 ‘뚜낙 생태관광센터’ 관광명소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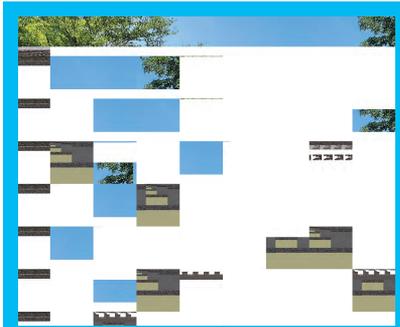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모든 방에서 바다가 보여 전망이 환상적이고, 모스크와 화장실까지 완벽해요.”

인도네시아 서누사똥가라주 롬복섬 남쪽 끝 산 중턱에 자리한 뚜낙 생태관광센터에서 만난 투숙객 에디(30) 씨는 이곳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칭찬을 늘어놓았다.

뚜낙 생태관광센터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산림청이 숙박동과 캠핑 시설, 생태체험장, 숲길의 설계와 건설을 맡았다. 이후 2018년 3월 개장 후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지원을 맡았다.

뚜낙센터의 숙박동 10개 방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늘 만실이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뚜낙센터에서 찍은 사진이 인기를 끌면서 롬복 주민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등 전국 각지에서 여행을 온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뚜낙센터에 도착하면 ‘환영합니다. 뚜낙 생태관광센터’라고 한글이 적힌 장승이 반갑게 맞아준다. 특파원이 방문한 날에는 뚜낙센터 인근에 서식하는 게코(gecko·도마뱀붙이)를 연구하기 위한 마타람대학교 교수와 학생 10여 명이 단체로 투숙했다. 이들은 뚜낙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룬구동 트럭 두대를 나눠타고, 숲속을 20여 분 간 달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롬복섬 뚜낙 생태관광센터 입구에 세워진 한글 장승.



산림청이 지원한 뚜낙 생태관광센터 내 숲길 코스

하트 모양 절벽이 인상적인 사리고양을 찾아 단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뚜낙센터 뒷산은 1천217 헥타르 규모로, 나비를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영주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실장은

“뚜낙산은 자연재해도 피해간다고 주민들이 믿을 만큼 신성시하는 산이라서 함부로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며 “뚜낙센터에 오면 자연 그대로의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뚜낙센터 안에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숲길과 나비 생태장, 사슴 보호장도 있다. 나비 생태장에서는 나비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어린이 교육장으로 종종 활용된다. 사슴 보호장에는 사슴 44마리가 있다. 이곳에서는 직접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가능하다.

뚜낙센터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현지 환경산림부로부터 관광센터 모델로 지정돼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는 처음부터 센터 운영을 주민들에게 맡겨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센터 매니저부터 숙박동 운영자, 숲속 체험을 위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사, 안내원, 식당 요리사와 청소원까지 모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산림청은 매년 이들 주민과 공무원 등 1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숲에서 어떻게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가르쳤다. 뚜낙센터 현지에서도 매년 주민 수십명에게 숲 해설 교육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홍보 방법, 현지 해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 자립 경영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장**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 코리아페스티벌 인천서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코리아페스티벌을 인천광역시에서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매년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과 연계해 전 세계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연합회 임원을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하는 행사다.

재단은 지난 12월 20일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2년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지 120년 되는 해다. 두 기관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 120주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행사',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재단 측에서 김성곤 이사장, 박종환 동포단체지원부장, 인천광역시 측에서 박남춘 시장, 홍준호 문화관광국장,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광역시와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2022년은 한미수교 14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인천광역시와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연말 맞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영양제·세탁세제 등이 들은 생필품 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지난 12월 22일 안산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신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캠프를 둘러보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의견을 들었다. 21일에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도 방문해 국내에 재정착한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이사장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더 많은 분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 기쁘다. 작은 선물이지만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고향마을 노인회 주훈춘 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데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주시 큰 힘이 된다”고 반겼다.



재외동포재단은 연말을 맞아 전국 31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2,860여명에게 8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재단은 전국 31개소에 거주하는 2천86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도 위문품을 보냈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사할린 동포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등 31개 지역에 살고 있다.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연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재외동포 인재’ 키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12월 29일 오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서울대학교-시흥시 간 3자 업무협약식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가운데), 오세정 서울대 총장(오른쪽), 임병택 시흥시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인 동포 정체성 교육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칭)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선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지난 12월 29일 경기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서울대, 시흥시와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동포 차세대 맞춤형 연수, 한상(韓商)-모국 간 상생발전 교육,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제공,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을 맡게 된다.

협약식에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성곤 이사장, 이영근 기획이사, 정광일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대에서는 오세정 총장, 오현석 시흥캠퍼스 본부장, 김규홍 시흥캠퍼스 부분부장이 함께 했다. 시흥시에서는 임병택 시장과 김우희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사회 공헌·공공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발전, 교류협력 증진 등을 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센터가 들어설 곳은 인천공항과 KTX광명역과 인접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서울대의 첨단 교육 기반시설을 잘 활용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생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보통의 우리-디아스포라영화제 특별 도서

박서련, 조유리, 한정현, 황모과 / 인타임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해 주목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가 2022년 10년을 맞는다. 이 영화제를 기점으로 디아스포라의 단면을 소재로 한 기획 도서가 발간되었다. 이 도서에는 총 4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이민자, 소수민족, 난민 등 디아스포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박서련 작가의 ‘김수진의 경우’, 조유리 작가의 ‘부케와 증인’, 한정현의 ‘期(기), 너를 기다려’, 황모과의 ‘그린 레터’ 등의 작품을 책에 담았다.



이주민과 난민, 외국인, 성소수자, 여성 등의 이야기다.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부유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이다. 이번 책에 대해 정지는 문화평론가는 “이번 기획 도서가 10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와 또 다른 결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일들을 풍성하게 연결하고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고 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차별과 혐오에 더 편향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각기의 구성원을 존중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수 인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부터가 존중의 시작이다. 이 단편 소설집의 제목처럼 소수자들을 ‘보통의 우리’로 만날 수 있는 인식과 사고를 길러보자.

아다치를 통해 본 재일코리안 형성사

강철 / 제이앤씨

개인의 삶을 통해 잊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개인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재일동포의 삶 속에는 한국-일본의 역사적 사건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54번째로 나온 이 책에서 저자는 혼돈의 사춘기를 거쳐 일본 내 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지만, 당시 재일동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법 제도상에서 불가능한 현실임을 알게 된다. 연구자의 길로 나서지만 일본 학계에서도 재일동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일본에서의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외교적 관계에서 생겨난 어려운 환경으로 개인의 절망감을 겪지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운동에서 다시 지역 의료 활동에 도전하면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 도서에 나타난 개인의 삶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인의 삶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코로나 중단 해외봉사단 재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했던 해외봉사단 파견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13개국에 총 48명 단원이 순차적으로 파견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단 재파견을 위해 방역·안전 확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KOICA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45개국에서 활동하던 1천437명을 전원 귀국 시켰고, 귀국 봉사단이 온라인으로 교육 등에 봉사하는 '원격봉사 프로그램'(E-volunteering)을 도입했다. 234명의 단원이 나섰고, 28개국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를 진행해 4만4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원격 봉사로는 한계가 있고, 해외 봉사에 나서려는 청년들의 수요도 늘어나 파견을 재개하게 됐다. 국내외 전문 의료기관 자문을 토대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만 50세 미만, 기저질환 미보유자 등으로 파견 기준을 세웠다.

현지 상황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35개국을 파견대상국으로 선정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 상황이 나빠지면서 13개국으로 축소했다. 파견 대상도 해외 경험이 있는 귀국 단원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KOICA는 파견 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의료서비스 전문단체인 인터내셔널SOS와 KOICA 본부, KOICA 해외사무소, 현지 병원 간 연계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일관계 개선 모색하는 '한·일포럼' 개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지난해 12월 3일 한국과 일본의 정계·학계·재계 분야 지도급 인사 40여 명이 참여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제29차 한일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일포럼 회장인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간사인 박철

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한포럼 의장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마에하라 세이지 국민민주당 대표 대행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한·일갈등의 현안 어떻게 할 것인가 ▲

한·일경제산업기술 협력 방안 ▲한·일 국내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한 한일의 대응을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나눠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일관계 우호 증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제6회 한일포럼상'은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고 이수현의 모친 신윤찬 씨가 선정됐다. 신 씨는 이 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회인 '의인 이수현 정신 선양회'를 설립해 20년간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온라인으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

세종학당재단 한국 취업 준비하는 외국인에 한국어 교육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지난해 1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좌측)과 여수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세종학당재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회화 중심의 다국어 온라인 강의를 개발, 공단의 해외 EPS센터에 제공한다. 우선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큰 네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온라인 강의 교재를 제작하고, 향후 EPS센터가 있는 16개 국가로 확대한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개발된 강의 콘텐츠는 온라인 세종학당(www.iksi.or.kr)과 한국어·한국문화 정보 제공 통합 누리집(nuri.iksi.or.kr/)에서도 볼 수 있다. [▶](#)

1902년 인천에서 시작된 이민의 역사

“1902년 12월 22일, 비나 눈은 오지 않았고 영하 4.5도의 날씨였다. 아침 8시 동서개발회사에 집결한 121명의 한인들은 오전 10시 인천해관에 도착하였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잔교 승선장에서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월미도 해상에 정박 중인 일본우선회사 소속 겐카이마루(玄海丸)에 올라탔다. 이민 관계자, 가족과 지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오후 2시 무지개나라로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한민족이 인천을 통해 세계와 이어졌던, 공식 이민의 여정이 시작되는 광경입니다. 1902년부터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천415명의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이민을 떠났던 인천은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품은 도시입니다.

하와이 이민단 1진 121명 중 86명이 인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근대문물을 익혔고, 신종교를 수용하였으며,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인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에 정착하여 자랑스럽게 모국의 국적을 사용하며,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와이 이민 50년을 기념하여 모국인 대한민국의 공업과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설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립 자금을 담당하였고, 인천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국민들은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1954년에 인천의 “仁”과 하와이의 “荷”를 붙인 인하공대가 개교하였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귀환의 상징임과 동시에 어수선한 시기 국민을 단결시킨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와이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들의 도움을 받아 2008년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가 마지막 본 조국의 도시, 인천 월미도에 박물관이 자리하였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민자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궤적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으로 가게 된 원인과 여정이 어떠한고, 낯선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거주국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는지, 그리고 모국과의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하였는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또 박물관 기능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공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 마음이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750만 명에 이르는 한인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 그 곳에는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 민족의 공식 이민 역사가 인천에서 시작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인천광역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도 함께 합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도 사진과 영상에 담긴 세계 속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한인사회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한민족의 이민 역사가 한인사회의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할 생각입니다. 전시와 관련하여 동포 여러분들과 동포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이민사박물관이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壬寅)년입니다. 톨은 물을,寅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물은 나무가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줍니다. 2022년은 물과 나무가 상생하듯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여 역병으로 움츠렸던 동포들의 활기찬 활동을 이끌어내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할 대학생 봉사단(OKFriends)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하며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2022년도 대학생봉사단(OKFriends)' 150명을 모집한다.

봉사단은 오는 6~8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과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 연수, 9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0월 세계한인 회장대회·세계한상대회 등에서 통역, 행사 보조,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한인 차세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참여한다.

모국에 수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과 교류 활동에도 참여하며, 해외에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

교 활동도 펼치게 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있고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갖춘 자로,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이 대상이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모국 유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재외동포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12월이다. 지원서는 2월 13일까지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나 전화(064-786-0275)로 문의하면 된다. [\[상\]](#)

12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12월 2일: 재외동포 언론인 찾동 간담회, 파독 광부&간호사 58주년 기념행사 참석
- 12월 7일: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 참석
- 12월 9일: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폐회식
- 12월 17일: 교포정책포럼 참석
- 12월 20일: 인천광역시 MOU체결
- 12월 22일: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식
- 12월 23일: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 참석
- 12월 29일: 서울대학교-시흥시 MOU체결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